예수 “따라 하기” 말고 “따라가기”

(열왕기하 2:1~18)

1.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2.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벧엘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벧엘로 내려가니
3. 벧엘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4.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예수 “따라 하기” 말고 “따라가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예수 “따라 하기” 말고 “따라가기”

전 세계적으로 3000천만 부나 팔렸다고 하는 고전적 베스트셀러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원 제목은 ‘In His Steps - What Would Jesus Do?(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입니다. 찰스 먼로 쉘던(Charles Monroe Sheldon) 목사님이 쓴 소설인데 소설 속에서도 교회와 목사님이 나옵니다.

레이먼드 도시에서 인쇄 노동자를 하다가 실업자가 된 사람이 나오는데, 레이먼드 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인 헨리 맥스웰 목사를 찾아가서 적선이나 구제가 아니라, 목사님께서는 아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테니 새로운 직장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 일이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가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 다음 주일 예배에 이 실업자가 찾아와서 예배가 끝난 뒤에 회중 앞에서 자신의 호소를 거부했음을 알리며 불평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라는 질문을 하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맥스웰 목사님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거절했던 것이 미안하기도 해서 그를 집에 데려와서 정성스럽게 돌보아 주는데 돌봄을 받던 중에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마지막에 '만약 예수가 당신의 입장에 있었더라도 당신처럼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위로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맥스웰 목사는 교인들에게 1년 동안 예수의 삶을 모방하는 삶을 살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일부 교우들의 진지한 호응을 통해 이 교회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한 레이먼드 시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소설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1년 동안 모방하는 삶을 살아본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 수가 없고, 따라하려는 의도 자체도 무의미하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면 부끄러울 뿐이지만 예수님을 따라하겠다는 의도 자체는 좋은 것 아니냐고 질문하실 수 있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하시다면 천 가지 만 가지 경우를 가져오시더라도 정답을 이야기해드릴 수 있습니다. 소설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경우에 한 가지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시는 대로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의 말씀과 행동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14:10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한다'는 말을 할 때에 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말씀과 행위는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된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가 없습니다.
'벤치마킹'은 경쟁사의 장점을 도입해서 우리 회사에 맞게 따라하는 것입니다. 따라하더라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서 모형적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1절부터 엘리야의 이동이 나옵니다. 길갈에서 출발하여 벧엘로 가고 벧엘에서 여리고를 거쳐 요단으로 갑니다. 그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하고, 엘

리사는 따라가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자기 마음을 꽁꽁 묶었던 것입니다.
길갈에서도 '여기 머물라'고 했지만 따라갔고 벧엘로 갔을 때에도 '여기 머물라'고 했으나 따라갔고, 여리고에서도 '여기 머물라'고 했지만 따라가서 요단까지 이르러서 엘리야의 승천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가 스승으로서 엘리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한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야 스승과 엘리사 제자의 관계에 대해 성경은 따라가기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따라가기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아주 완벽하게 모형적으로 앞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스승들은 자기의 사상과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스승으로서 엘리사에게 제시하는 것이 없고 그나마 엘리사도 따라만 갔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심오한 사상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14: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도 그것을 즉시 깨달으리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엘리사의 따라가는 태도였습니다.

본문 9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라는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서 '갑절'은 수치상 '두 배'라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아버지로부터 유산이 나눠질 때에 장자는 다른 아들들에 비해 두 배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갑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의 아들과 같은 입장으로 장자적 계승자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엘리야는 10절에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승천하는 자에게 마음을 묶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에 엘리사가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엘리야도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장자적 위치에서 성령의 역사가 승계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길갈에서 벧엘로 벧엘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엘리사는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마음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더 이상 좇아갈 수가 없자 바라봅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것은 엘리야에게 묶은 마음이 하늘로 따라갔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바라보는 것은 마음 보내기의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 회사에 있으면서 다른 곳에 있는 애인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마음을 애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행7: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하는데 그 고난 속에서 마음을 하늘로 보냈음을 뜻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몰트만 신학자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고난 속에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면서 스데반의 마음을 불러들이셨고 스데반의 마음을 보낸 것을 바라보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40: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합니다.
앙망하는 것은 곧 마음을 하늘에 보내는 것입니다. 승천하는 엘리야를 바라볼 때에 성령이 갑절로 임할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을 것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엘리사는 무슨 가르침을 받거나 심오한 사상을 전수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에게 마음을 묶어 따라서 보냈던 것입니다. 따라갔더니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서 엘리야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행동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길을 따라갔더니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따라 해야 될 분이 아니라 따라가야 될 분입니다. 십자가로 따라가고 부활로 따라가고 승천하는 엘리야를 엘리사가 따라갔던 것처럼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을 자꾸만 ‘따라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도’를 강조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나 아닙니다.
따라가기가 앞서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조차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마음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따라가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다시금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당신에게 마음을 묶도록 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애인이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마음을 묶을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미국으로 떠났다면 평소에는 미국을 잊고 살더라도 그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은 그들을 따라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샌디에고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내 자녀가 가있다면 기후나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마음이 샌디에고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모방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운동권 학생들이 자신들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전정화 사건'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성전을 정화하는 혁명적인 행동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잘못된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대해 항거하고 혁명적인 행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마더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찾아가서 섬기셨던 것과 같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은 다 예수님 따라 하기인데 이것은 죄송하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공생애의 벤치마킹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생애는 공생애 전체의 말씀과 행위와 모든 기적과 사건들은 단 한가지의 목적을 향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무성하게 남아있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으로는 풍요와 다산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감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야가 승천한 것은 마음을 하늘로 보내어 하늘의 영역이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내세에 나의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 되어서 마음을 하늘로 보내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 승천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늘은 몸이 죽은 다음에야 가는 세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이 현실이 되어야 하고, 내가 하늘을 현실로 삼기 위해 마음을 보내야만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이 땅에서 풍요와 다산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느낄 수 없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를지라도 바알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마음을 보내기 위한 하늘을 증거 하신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그렇게 증거 하신 하늘로 우리 마음이 갈 수 있는 길을 내신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의 깊은 의미를 당장 깨닫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행위를 모방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승천 사건은 예수님을 예표 하는 것으로서 엘리사가 마음을 묶음으로서 그 시대에 끝난 사건입니다.

하늘이 나의 현실이 되려면 마음을 보내야 하는데 예수님께 마음을 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승천 사건은 예수님 외엔 없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세상에 대해 마음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들에 대해서조차 죽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제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겠다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세상을 향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기쁨과 만족과 보람과 행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일이 이렇게 되어야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해서 하늘로부터만 기쁨과 만족이 올 것을 기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십니다. 주님께서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마음을 모아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도 하늘로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애인이 미국에 있는데 마음으로는 싹 잊어버리고 있다가 1년 만에 애인이 돌아올 날에야 기억해 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늘로 보내지지 않는 이유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 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 마음을 묶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애인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애인이라면 반드시 마음이 묶였고 하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하늘이 현실이 됩니다.
샌디에고라는 도시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애인이 그곳에 가있다면 그곳은 우리나라의 서울 부산 광주보다도 더 현실적인 도시가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가 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하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곧 하늘에 내가 사랑하는 자가 없고, 마음을 묶어서 보낼 만큼 사랑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부르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생각지 않는다면 다만 이 땅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우상화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 돈 벌게 해주세요. / 예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 예수님! 우리 자녀를 형통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계속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으므로 성령을 통해 함께하셔야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보냈을 때에 주님이 함께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마음을 하늘로 보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늘로 보내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의미도 다른 각도에서 비쳐집니다.
승천하는 엘리야를 바라볼 때에 엘리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장자적 정통성을 가지고 위임됩니다. 또한 승천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에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승천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벤치마킹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하지 말고 따라가서 마음이 하늘에 머물러야 합니다.
내가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만 내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믿으며 하늘을 추구할 때에, 이 지상에서 각자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공생애처럼 나타날지언정 예수님을 따라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기 위한 많은 기독교의 복지기관이 있지만 그 내부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장애인을 금식이라는 명목으로 굶기거나 비리가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한다고 했지만 안 되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마음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너무 쉽습니다. 길갈과 벧엘과 여리고와 요단으로 이어지는 엘리야의 길을 엘리사가 따라갔듯이, 그저 우리 마음으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그 길을 따라가게만 하시고 기어코 마음이 하늘까지 따라감으로서 엘리사에게 임했던 사역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